



# 해외보험리포트

---

## 스페인

---

이승주, 장윤미



## Executive Summary

스페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대국이자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온 16개의 자동차 공장이 가동 중에 있는 유럽 2위 자동차 생산국 및 4위 소비국임. 스페인은 EU 경제권 편입 이후 2010년 초 남유럽 재정적자 위기와 2020년 촉발된 코로나19 위기에 기인한 관광산업 위축으로 두 차례의 큰 경제위기를 겪었으나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를 회복하였고 엔데믹으로 관광산업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동 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받음. 스페인은 현재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하는 '국가 경제재건계획' 하에 경제모델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스페인의 보험산업 감독기구는 보험연기금감독국(DGSFP)으로, 동 기구는 보험법 법안을 '경제경쟁력부(Ministerio de Economía, Comercio y Empresa)'와 논의 후 의회에서 통과 시킴. 의회에서 통과된 보험법 법안은 최종적으로 국왕의 승인을 받아 채택됨. 스페인은 EU 가입 이후 유럽연합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기반으로 보험산업 관련 법 및 규제를 발전시켜 왔음. 외국 법인의 경우 스페인 보험회사 소유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경제지역(EEA)의 보험회사는 본사 통제하에 스페인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지점을 설립할 수 있음.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스페인 보험회사 지분 소유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스페인 보험시장은 2022년 기준 전 세계 16위에 해당하며 보험침투도는 4.9%이고 보험밀도는 1,433달러임. 생명보험이 전체 보험산업의 37.6%를 차지하고, 손해보험이 62.4%를 차지함. 전체 보험시장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축소된 후 최근 회복 중이나 2022년 기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하향하고 있음. 생명보험시장의 성장률은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낮고 보장성 상품보다 저축·은퇴성 상품의 인기가 높음. 생명보험시장은 현지보험회사인 VidaCaixa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판매채널로는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높음. 반면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대체로 성장세이고, 장래보험상품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음. 손해보험시장은 현지 및 외국계보험회사가 비교적 고루 시장을 분배하고 있고, 판매채널로는 보험설계사의 비중이 높음

# I

## 국가 개요 및 경제

### 1. 국가 개요

○ 세계 2위 관광대국이자 유럽 내 경제 규모 4위를 차지하는 스페인은 2010년 남유럽 국가 재정적자 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경제위기를 맞이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있음<sup>1)</sup>

- 입헌군주국가인 스페인은 국왕을 국가 원수로 연방정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국왕,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의해 권력의 균형을 이룸
  - 입법부는 상·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4년으로, 상원(Senado)은 총 266명, 하원(Congreso de los Diputados)은 인구 비례에 따른 직접 선거로 약 300~400명 내외로 구성됨
  - 카탈루냐주는 독자적인 정체성, 타 주 대비 높은 GDP를 이유로 독립을 주장해 왔으며 2017년 분리주의를 내세운 대규모 시위까지 벌어졌으나 이와 관련한 갈등은 정치권에서 해결되지 않음
- 인구 구성은 스페니시 84.8%, 모로코인 1.7%, 루마니아인 1.2%, 기타 12.3%로 이루어져 있고, 스페니시 중 카스티야인 74%, 카탈란인 17%, 바스크인 2% 등으로 개별 민족 정체성이 강한 다민족 국가임<sup>2)</sup>
  - 공용어는 스페인어(카스티야어)이고 지역 공용어는 카탈루냐어, 바스크어, 갈리시아어가 있으며 최근 의회 공식어로서 카탈루냐어, 바스크어, 갈리시아어의 사용이 허용되었음
  - 1978년까지 가톨릭교가 국교였으나 ‘국교’의 개념은 폐지되었으며 인구 절반 이상이 가톨릭교(55.4%), 다음으로 무교(28.4%)와 이슬람 등 기타 종교(3.2%)로 구성되어 있음
-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67.9%, 제조업 20.79%, 농업 2.34%로 이루어져 있고,<sup>3)</sup> 이 중 관광산업의 GDP 기여도는 12.4%<sup>4)</sup>로, 이는 스페인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
  - 관광산업은 전체 고용의 13.5%를 차지할 만큼 스페인 산업의 주축을 이루었으나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2020년 GDP에 대한 관광산업의 기여도가 5.5%로 크게 위축되었음
  -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스페인은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대국임

1) KOTRA(2023), 국가지역정보-스페인

2) CIA(2023), "THE WORLD FACTBOOK-Spain"

3) Statista(2023), "Spain: Distribution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across economic sectors from 2012 to 2022"

4) 해당 수치는 2019년 기준으로 2020~2021년 코로나 위기로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된 바 있음

- 스페인은 관광 외에도 2022년 기준 유럽 2위 자동차 생산국 및 4위 소비국으로 전역에 유럽, 미국, 일본 등 자동차 제조사의 16개 공장이 가동 중이며 자동차 수출액은 연간 500억 유로에 달함
- 2022년 기준 1인당 GDP는 29,675달러로, EU 국가 중 중하위권인 15위<sup>5)</sup>, OECD 회원국 중 24위<sup>6)</sup>이고, 2010년경 남유럽 국가 재정위기로 인해 유럽연합의 이른바 ‘PIGS<sup>7)</sup>’ 국가에 속하기도 하였음
- 그리스 디폴트 위기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로 스페인은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었으나 고강도 긴축정책, 노동개혁을 통해 PIGS 4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를 회복시킴

〈표 1〉 스페인 주요 국가 지표<sup>1)</sup>

항목	지표 현황	항목	지표 현황
면적	50만 5,965km <sup>2</sup> (한반도 약 2.3배)	인구	약 4,778만 명
생산가능인구	3,150만 명	고령화 비율	20%
소비자물가상승률	8.4%	실질 GDP 성장률	5.8%
GDP	약 1조 4,200억 달러	1인당 GDP	29,675달러
기대수명(남)	80세	기대수명(여)	86세

주: 기대수명 및 면적(2021년 기준)을 제외한 모든 지표는 2022년 기준임  
 자료: The World Bank(2024), “World Bank Open Data - Spain”

- 스페인의 중위연령은 45세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2022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sup>8)</sup>
  - 2022년 기준 스페인의 고령화율은 20%이고 타 EU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45년 노년부양비<sup>9)</sup>가 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한국은 2024년 기준 27.4명)
    - 2007년부터 2022년 사이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5%에서 23.8%로 증가하였고, 같은 시기 중위연령도 38세에서 45세로 상승함
    - 스페인 통계청이 2030년까지 약 80만 명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2백만 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는 35.1명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 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하고 연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2023년 연금 개혁법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최저 납입보험료 증가, 연금 납입 기간 옵션 확대(25년→25년 혹은 29년), 자영업자의 연금 실효성 및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sup>10)</sup>

5) Statista(2023),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in the European Union in 2022, by member state”

6) KOSIS(2023), 「1인당 국내총생산(당해년가격)(OECD 회원국)」

7) PIGS란 유럽연합에서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었던 국가인 포르투갈(Portugal), 이탈리아(Italy), 그리스(Greece), 스페인(Spain)의 앞 글자를 따서 부르는 용어임

8) Banco de Espana(2023), “The impact of population ageing on the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in Spain”

9)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임

- 또한 2012년 불법 이민자의 공공의료제도 남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노령 연금 수령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방 약물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10%에서 최대 60%까지 부담하도록 법률을 제정함
- 스페인 보험시장 또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발맞추어 이전에는 최대 가입 연령 제한이 65~70세였으나 80~85세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확대 및 판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 경제

- 스페인은 EU 경제권 편입 및 유로존 가입 이후 두 차례의 큰 경제위기를 겪었으나 이를 극복했다고 평가받으며, 현재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하는 근본적인 경제모델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sup>11)</sup>
  - 스페인 정부는 1959년 ‘국가경제안정화계획(Plan Nacional de Estabilización Económica)’ 아래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3차례의 4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음
    -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폐쇄주의적 경제체제에서 산업개발 및 경제현대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던 해당 기간을 ‘개발주의(Desarrollismo)’ 시기라 하며 연평균 7%의 고도성장을 구가하였음
    - 해당 시기 농업 중심 국가에서 자동차, 기계,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국가로 변모하는 기반을 다짐
  -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70% 이상이었던 스페인은 이후 1·2차 오일쇼크를 겪으며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었으며 최초의 민선총리 아돌포 수아레스가 몽클로아 협약을 체결하면서 장기적인 구조개혁의 틀을 구축함
    - 몽클로아 협약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체결되었는데, 정치 및 경제 구조개혁으로 나누어지며 스페인이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상당 부문 기여하였음
  - 스페인은 1986년 유럽경제공동체(ECC) 편입 및 1999년 유로존 가입을 통한 유로화 도입으로 경제개방과 시장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해외자본 유입이 확대되고 내수시장 및 고용이 활성화되었음
  -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반된 부동산 버블의 붕괴, 코로나19 위기에 기인한 관광산업 위축으로 두 차례 큰 경제위기를 겪은 바 있음

〈표 2〉 스페인 주요 경제 발전 연대기 및 경제 정책

시기	경제 상황 및 정책	주요 내용
1964~1967	제1차 경제개발계획	• 산업개발거점, 산업촉진거점, 화학산업거점 등을 지정하여 지역별 산업개발 추진(e.g. 자동차 생산공장 유치 시작)

10) The Local Spain(2023), “What you need to know about Spain's new pension reform”

11) 주 스페인대사관(2021), 『스페인 경제 역사』

〈표 2〉 계속

시기	경제 상황 및 정책	주요 내용
1968~1971	제2차 경제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개발 우선지역 확대</li> <li>인플레이션, 수출입 커버율, 통화공급, 산업생산, 실업률 등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li> </ul>
1972~1975	제3차 경제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페인 경제현대화(농업 중심→산업 중심 국가)</li> </ul>
1973~1984	1·2차 오일쇼크, 몽클로아 협약 (Pactos de la Monclo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높은 에너지 의존도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 및 투자, 고용의 위축</li> <li>임금인상 제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공공지출 및 재정적자한도 제한, 소득세·부가세·법인세 중심의 조세제도 확립, 부동산 개발지원 확대 등</li> </ul>
1986~1994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개방 및 시장자유화 수용</li> <li>해외 유입 증가 및 내수시장 성장으로 고성장기 구가</li> </ul>
1995~2007	유로존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로존 가입 이후 금리와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이 낮아지면서 부동산, 내구재 등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투자 확대에 따른 기업 고용 활성화</li> </ul>
2008~2013	EU 구제금융 신청, 라호이 정권의 경제개혁 단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 버블 붕괴</li> <li>EU에 1천억 유로의 구제금융 신청</li> <li>2011년 라호이 정권의 고강도 경제구조개혁(금융, 노동, 연금개혁 및 긴축재정 등)</li> </ul>
2014~2019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경제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대 견고한 경제성장을 회복</li> </ul>
2020~현재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 국가경제재건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위기로 경제 취약계층 지원, 실업급여 지급, 공중보건 예산 지출 등으로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악화</li> <li>EU 경제회복기금으로부터 기금 지원 약속</li> <li>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넘어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하는 근본적인 경제모델 현대화 추진</li> </ul>

자료: 주 스페인대사관의 『스페인 경제약사』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EU 가입 이후 첫 번째 위기는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스페인은 재정위기에 빠진 남유럽의 'PIGS' 국가에 속하기도 하였으나 라호이 정권의 고강도 구조조정 및 긴축재정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함<sup>12)</sup>

- 스페인에서는 유로존 가입 이후 금리 및 환율변동 위험이 낮아지면서 부동산 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곧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이어졌음

- 2010년의 0.2%의 성장률을 제외하고 2009년(-3.8%)에서 2013년(-1.4%)까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sup>13)</sup>

- 이에 국민당 소속의 보수파인 라호이 총리는 경제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회복시키고 EU

<sup>12)</sup> 외교부(2019), 『스페인 개황』

<sup>13)</sup> World Bank Open Data(2023), GDP growth (annual %) - Spain

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1년 만에 구제금융 체제에서 졸업하여, 동일한 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PIGS)에 비해 단기간 내 경제위기를 극복하였음

- (긴축재정) 공공투자 14% 축소, 공무원 임금 5% 삭감, 연금 동결 및 정년 연장 등 공공부문 지출을 억제함
- (금융개혁) 부실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위한 EU 구제금융 신청과 더불어 구제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부실자산 정리 등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단행되었음
- (노동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위해 해고 정당화 기준을 완화하고 기업의 유연성(사측의 근로조건 수정 가능)을 확대하였으며 단체협약 사항의 효력을 상호 간 재협상이 가능하도록 함
- (조세개혁)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세를 인상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등 세금 인상 정책을 추진함
- (연금개혁) 은퇴 연령을 2027년 67세(기존 65세)로 확대하기 위해 이를 2013년부터 1~2개월씩 점진적으로 연장하고, 연금 수령액 산정 기준을 정년 이전 15년에서 2022년부터 정년 이전 25년으로 연장함

○ 두 번째 위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위기로, 2020년 경제성장률 -11.2%를 기록하여 스페인은 EU 주요국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나 국가경제재건계획을 세워 동 위기를 극복하고 있음

- 앞서 스페인 경제는 2019년까지 부동산 버블 붕괴에서 기인한 위기에서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EU 주요 선진국 중 가장 큰 경제적 타격(-11.2%)<sup>14)</sup>을 입었음
  -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실업급여 지급, 공중보건 예산 지출 등으로 공공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공공부채가 확대되었음
  - 정부는 2020년 GDP의 20%에 달하는 2,500억 유로를 경제위기 대응에 투입하였으며 재정적자 비율은 2019년 2.9%에서 2020년 11%, 공공부채 비율은 2019년 95.5%에서 2020년 120%로 확대됨
- 정부는 EU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의 지원을 약속받고 EU에 친환경·디지털화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경제재건계획(Plan for Recovery, Transformation and Resilience)을 제출하였음
  - 스페인은 2021년에서 2026년까지 EU경제회복기금으로부터 1,400억 유로의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이 중 약 700억 유로의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경제재건계획을 세웠음
  - 정부는 동 계획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넘어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하는 근본적인 경제 모델 현대화를 추구하는데, 이 중 예산의 70%를 친환경 및 디지털 분야에 투입할 예정임

<sup>14)</sup> World Bank Open Data(2023), GDP growth (annual %) - Spain

# II

## 보험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제

### 1.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 및 규제 변천

- 스페인 보험법은 ‘보험연기금감독국(이하 ‘DGSFP’라 함)<sup>15)</sup>이 ‘경제경쟁력부(Ministerio de Economía, Comercio y Empresa)<sup>16)</sup>와 논의 후 의회에서 통과시킨 다음 최종적으로 국왕의 승인을 받아 채택됨
  - DGSFP는 보험법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시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경제경쟁력부와 협의를 거친 다음 이를 의회에 제출함
  - 법안이 의회에서 채택되기 위해서는 상·하원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된 법안은 국왕의 최종 승인을 거쳐 공포됨
    - 상·하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양원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의 조정을 거쳐 투표를 재실시하고, 다시 합의가 결렬될 시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을 통해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함
  - DGSFP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또한 5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면 보험법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대중 시위를 통한 청원은 금지되어 있음
  
- 스페인은 1986년 EU 가입 이후 유럽연합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기반으로 보험산업 관련 법 및 규제를 발전시켜 왔음
  - 1999년 유럽연합은 ① 도매 금융 서비스를 위한 단일 시장 형성, ② 개방적이고 안전한 소매 금융 시장 보장, ③ 첨단 감독 규칙 및 감독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는 금융서비스 통합 실행계획(FSAP)을 시행함
    - FSAP를 기반으로 유럽연합은 보험산업과 관련하여 보험중개지침(2002/92/EC), 보험회사청산과 회생지침(2001/17/EC),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지침(2002/13/EC, 2002/83/EC), 금융서비스 원거리마케팅지침(2002/65/EC)를 발전시킴<sup>17)</sup>
    - EU 입법체계는 회원국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지닌 ‘규정(Regulation)’과 회원국이 지침의 주체가 되어 각국의 국내법 개정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지침(Directive)’으로 나누어짐

15) ‘La Direccion General de Seguros y Fondos de Pensiones’의 약자임

16) 동 기관의 명칭은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 Laws Information Center)의 표기법을 인용함

17) 자본시장연구원(2011), 「EU 금융서비스 통합 실행계획(FSAP)의 구조와 체계」

- (재)보험회사의 조직, 감독 및 지급여력에 관한 법(LOSSEAR<sup>18)</sup>)은 EU 제3차 보험지침(the Third Generation Directive) 중 주축을 차지하는 건전성 기준인 Solvency II를 스페인 내에서 제도화하는 법률임
- Royal Decree Law 3/2020 of 5 February 2020은 보험상품 판매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주요 원칙으로 하는 EU 보험상품판매지침(IDD)을 국내법에 맞추어 제정한 것임

〈표 3〉 스페인 주요 보험산업 관련 법 및 규제 변천

연도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률
1981	• Law 50/1980 of 8 October 1980 : 보험계약을 다루는 법으로 개정 상법(Codigo Comercial)이 이를 대체함
2006	• Law 20/2005 of 14 November 2005 :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법률로, 2007년 Royal Decree 398/2007에서 구체화되었음
2011	• Consumer Credit Law, Law 16/2011 of 24 June 2011 :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지불에 대해 다루는 법률로, 30조에서 보험계약대출로 인한 보험료 반환과 생명보험 전매에 대해 다루고 있음
2012	• Royal Decree-Law 10/2012 of 23 March 2012 : 기밀 정보 및 긴급 상황과 관련하여 감독기구(스페인 은행, 스페인 증권시장 감독위원회, DGSFP)와 유럽 감독당국(ESAs)의 소통 매커니즘을 다루는 법률임
2014	• Royal Decree 672/2014 of 1 August 2014 :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부(Sub)감독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DGSFP의 거버넌스에 대해 다루는 법률임
2015	• Law 26/2014 of 27 November 2014 : 65세 이상의 국민이 부동산 매매 및 펀드 수익을 연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 상품에 대해 다루는 법률로, Royal Decree 633/2015은 최대 24만 유로의 비과세 혜택을 규정함
2016	• Law 20/2015 of 14 July 2015(LOSSEAR) :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의 경영, 감독, 지급능력을 규제하고 EU Solvency II 규정을 완전히 국내법화하였음. 이는 2004년 Royal Decree 6/2004을 대체하는 법률임 • Royal Decree 1060/2015 of 20 November 2015(ROSSEAR) :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의 경영, 감독, 지급능력을 규제하고 EU Solvency II 규정을 국내법화하였음. 이는 1998년 Royal Decree 2486/1998을 대체하는 법률임
2017	• Royal Decree 531/2017 of 26 May 2017 establishing the organic structure of the Ministry of Economy, Industry and Competitiveness : 신설된 경제산업경쟁력부(현 경제경쟁력부의 전신) 내 DGSFP의 거버넌스를 규정한 법률임
2018	• Law 4/2018 of June 2018 : Law 50/1980의 개정 법으로 에이즈 및 HIV 유병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임
2020	• Royal Decree Law 3/2020 of 5 February 2020 : 보험 및 재보험 중개인을 규제하는 법률로 2006년의 '보험 및 재보험 중개법(Law 26/2006)을 대체함. 동 법은 부업보험모집인(Ancillary insurance intermediaries) 지정·등록에 대해 다룸 • Royal Decree 403/2020, of 25 February 2020 : 동 법률의 7조에서 DGSFP를 경제경쟁력부의 종속 기관으로 명시함

<sup>18)</sup> La Ley de Ordenación, Supervisión y Solvencia de las Entidades Aseguradoras y Reaseguradoras의 약자임

〈표 3〉 계속

연도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률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oyal Decree 287/2021 : 보험 및 재보험 판매채널에 대한 교육 및 회계 정보 제출에 대한 관련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임</li> </ul>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oyal Decree Law 5/2023 : 원치 판정 이후 5년이 경과한 암 환자의 보험 및 은행 상품 계약에 대한 이들의 '잊혀질 권리'에 대해 규정함</li> </ul>

주: Royal Decree(Real Decreto)는 주로 행정 명령에 적용되는 반면, Royal Decree Law(Real Decreto-ley)는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왕의 명령으로 법률 발효 후 입법부의 사후승인(30일 내)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 2. 보험산업 감독과 규제

- (재)보험회사의 조직, 감독 및 지급여력에 관한 법(이하 'LOSSEAR'라 함)에 따라 DGSFP는 스페인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인가, 감독 및 규제를 받고 있음
  - DGSFP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예산 설정에 대한 자율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 규제 시스템의 부족한 독립성에 대한 지적이 존재함
    - 보험회사가 회원사로 소속된 보험 및 연기금 협의체(Junta Consultiva de Seguros y Fondos de Pensiones)는 감독국에 자문과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이외 사안에 대한 투표권 또한 지니지 않음
  - 2019년까지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중앙은행(Banco de España)으로 보험회사 감독에 대한 권한을 이관하려 하였으나 감독 및 규제 모델에 대한 합의 부족,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중단되었음
  - DGSFP의 현 중점 사안에는 Solvency II 리뷰, IFRS17 시행,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이 있음
- 이와 더불어 스페인 보험산업은 유럽 전역을 감독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와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의 감독하에 있음<sup>19)</sup>
  - 양 기구는 2010년에 신설되어 유럽연합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님
    - ESRB는 EU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위험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고 및 권고를 하지만 이는 각국의 감독기관 및 정책 결정자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침

<sup>19)</sup>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는 'European Systemic Risk Board'의 약자로(이하 'ESRB'라 함)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은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의 약자임(이하 'EIOPA'라 함)

- EIOPA는 회원국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일관된 접근 방식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유럽연합 총괄 감독기관으로서 감독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함

## 가. 보험회사의 면허제도와 사업 범위

- 스페인 내 면허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면허 두 가지로 구분되며, 개인상해 및 건강보험은 손해보험의 영역으로 분류됨
  - 손해보험 면허는 자동차, 화재, 책임 등의 18개 범주로 분류되며 장례 보험(Seguro de Decesos) 또한 동 범주의 주요 부분을 차지함
  - 본래 개인상해 및 건강보험은 손해보험의 영역에 소속되어 있지만, 동 상품만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LOSSEAR 제31.2조에 따라 생명보험사업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
  - 1984년 이후 생·손보를 겸영할 수 있는 복합면허(Composite license)가 발급된 사례는 없었음
    - 다만 오랜 기간 스페인에서 사업을 영위해 온 Allianz, Catalana Occidente, Generali, Mutua Madrileña 등 상당수 보험회사는 생명 및 손해보험업을 겸영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재보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별도의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음

## 나. 보험회사 최소 자본금과 지급여력제도 규제

- LOSSEAR 제33조에 따라 스페인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 영역에 따라서 약 2백만 유로에서 9백만 유로에 이르는 최소 자본금을 보유하고 최소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납입해야 함
  -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영역이 확대될수록 감독당국에서 요구하는 최소 자본금이 높아짐

〈표 4〉 보험회사 종류별 최소 자본금

보험회사 종류	최소 자본금(최소 50% 납입)
채권, 신용 및 책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	9,015,000유로
사고, 질병, 법률 비용, 장례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2,103,000유로
기타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3,005,000유로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함

- LOSSEAR 제78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의 최소요구자본(MCR)은 지급여력요구자본(SCR)을 기반으로 SCR의 25%에서 45% 수준에서 결정됨<sup>20)</sup>

- 또한 신용, 보증 및 책임보험의 경우 최소 370만 유로, 기타 보험의 경우 250만 유로의 MCR이 적용되며 동 금액은 EU 회원국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에 따라 10만 유로 단위로 5년마다 조정됨

○ EU 회원국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보험회사는 리스크 기반 요구자본 산출, 자산·부채의 공정 가치 평가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EU Solvency II 규정을 따름

- Solvency II는 3층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1층(Pillar 1)은 요구자본 및 가용자본 산출을 위한 양적규제, 2층은 보험회사 자체 리스크 평가(ORSA)를 통한 질적규제, 3층은 보험회사 재무상태 투명성 확보 및 시장규율 강화를 위한 감독당국 보고 및 기업공시 관련 요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요구자본 산출의 기본 공식에는 기본 요구자본, 운영위험 요구자본, 책임준비금 및 이연법인세 손실 흡수 능력 조정값이 포함됨
  - 기본요구자본 산출을 위해 필요한 개별 위험 요소로는 언더라이팅(손해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위험, 시장 위험, 거래상대방 채무 불이행 위험으로 구성되며, 내부 모형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연간 총 수입보험료가 5백만 유로 이하이거나 책임준비금과 더불어 재보험 계약 및 특수 목적 회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2천 5백만 유로 미만인 보험회사는 Solvency II 적용 예외 대상임

## 다. 소비자보호 규제

○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시 소비자는 보험회사 내 설치된 자체 고객 서비스 지원 부서나 외부 옴부즈만(Defensor del Cliente)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Law 44/2002에 따라 보험회사는 소비자와의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부서를 설립할 의무가 있음
- 이와 더불어 분쟁 해결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 법인 혹은 전문인 형태의 외부 옴부즈만(Defensor del Cliente)을 지정해야 하며 외부 옴부즈만의 최종 결정은 보험회사에 대해 구속력을 지님
  - 소비자는 옴부즈만의 최종 결정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옴부즈만의 분쟁 조정 결과에 불복한다면 DGSFP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함
- DGSFP의 분쟁서비스 부서(Servicio de Reclamaciones de la Dirección General de Seguros y Fondos de Pensiones) 또한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감독국이 내린 결정은 보험회사, 소비자 양측에 구속력이 없으나 중재 결과가 수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 DGSFP는 매년 분쟁 조정 세부 보고서를 발표하며 2022년 기준 10,797건의 분쟁 사례가 접수되었음<sup>21)</sup>

<sup>20)</sup> Solvency II는 요구자본을 SCR과 MCR로 이원화하였는데, SCR은 예상치 못한 손실을 흡수함으로써 향후 1년 동안의 보험회사의 파산확률을 0.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목표 자본수준을 의미하고, MCR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자본수준을 의미함

- 2022년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중앙은행(Banco de España), 주식 시장 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l Mercado de Valores), DGSFP의 고충처리부서 통합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관(Autoridad de Defensa del Cliente Financiero) 설립 법률안을 승인하였음<sup>22)</sup>
  - 금융소비자보호기관은 분쟁 발생 보험회사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으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법률 위반 사실을 인지할 시 DGSFP에 알려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소비자는 보험회사 고객 서비스 지원 부서나 외부 ombudsman에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소송을 제기 하기 이전에 금융소비자보호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접수되는 분쟁 한 건 당 보험회사는 200유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분쟁 금액 한도는 확정되진 않았으나 5만 유로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 라.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규제

- 보험법을 완전히 준수한 외국 법인의 경우 스페인 보험회사 소유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경제지역(EEA)의 보험회사는 본사 통제하에 스페인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지점을 설립할 수 있음
  - LOSSEAR 제51조에 따라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에 이미 설립된 보험회사는 스페인 내에서 사전통지나 별도의 승인 없이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 LOSSEAR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유럽연합이 아닌 제3국 보험회사의 경우 EEA 국가 보험회사의 설립요건과 유사하나, 추가로 스페인 거주자를 법인 대표로 임명해야 함
    - 제3국 보험회사는 본국에서 스페인에서 인수하고자 하는 위험에 대해 언더라이팅 인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자본금의 50%를 소유해야 하고 최소 자본금의 25%를 DGSFP에 납입해야 함
    - LOSSEAR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라 제3국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요구자본은 타 EEA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한 스페인에서의 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함
  - EEA 지역 재보험회사의 경우 LOSSEAR 제51.3조에 따라 본국의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자유롭게 스페인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제64조에 따라 제3국 재보험회사도 스페인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 다만 제3국 재보험회사는 108조에 따라 Solvency II와 제도 호환성을 검증하기 위해 별도의 동등성 (Equivalence) 테스트를 받아야 하나, 시장 내에서 제3국 재보험회사의 실제적인 활동은 두드러지지 않음
  - DGSFP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스페인 보험회사 자본 중 외국 기업 소유 비율은 16.7%를 차지하며 가장 큰 투자를 한 국가는 스위스(5.5%), 미국(3.6%), 프랑스(2.2%), 네덜란드(2.1%) 순임

<sup>21)</sup> Memoria del Servicio de Reclamaciones de la Dirección General de Seguros y Fondos de Pensiones

<sup>22)</sup> CGPA europe(2021), "Spain sets up its first financial and insurance mediation body"

-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스페인 보험회사 지분 소유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마. 보험회사 투자 규제

- LOSSEAR 제79조 및 ROSSEAR 제89조에 따라 스페인 재보험회사 및 보험회사는 EU Solvency II 에서 규정하는 투자 방식에 대한 내용을 준수함
  - 이전의 투자 접근 방식은 '허용 자산(Admissible assets)'을 규정하였으나 Solvency II는 대차대조표 자산 항목에 대한 요구자본과 관련한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하며 보험회사는 이를 준수함
  -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 원칙(Prudent Person Principle)에 따른 투자를 행해야 하며 포트폴리오의 안전성, 질, 유동성 및 수익성 보장을 위해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함
  - 유럽투자기금 혹은 유럽투자은행이 보증하는 증권의 경우 '고품질' 자산으로 규정하고 동 자산에 대해서는 0%의 위험 부담금이 적용됨
- 동 법률은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자산 한도에 대해 규정하지 않음

#### 바. 보험회사의 청산 절차

- 지급여력 요구자본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보험회사 및 보험회사는 해당 사실을 DGSFP에 고지하고 이를 충족할 방안을 담은 계획을 제출해야 함
  - 보험회사가 지급여력 요구자본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3개월 이내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 예상할 경우 10일 이내에 DGSFP에 사실을 고지하고 2개월 이내에 시정 계획안을 제출해야 함
  - DGSFP는 문제 제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지급여력 요구자본을 포괄하는 가용자본 수준을 재설정하거나 위험 프로필을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함
- DGSFP는 스페인 보험업에 관한 공적기관인 'Consortio<sup>23)</sup>'와 함께 파산 위기 보험회사에 대한 특별 통제 조치를 내리거나 끝내 요구자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회사를 청산시킬 수 있음
  - 스페인 보험산업 순보험료의 0.15%는 Consortio의 자금 조달에 쓰이는데, Consortio는 보험가입자를 최우선으로 두고 회사 청산에 개입함

<sup>23)</sup> Consortio(Consortio de Compensación de Seguros)는 스페인 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자연재해와 같은 대재해 위험을 보장하고 보험회사 청산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함. 동 보고서 제3장 '보험시장 현황' 중 p. 18('스페인 재보험시장의 특징으로는 자연재해와 같은 대재해 위험을 보장하는 공적기관인 Consortio가 존재한다는 점임')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사. 의무보험

- 지방자치분권화가 이루어진 단일 국가인 스페인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17개의 자치구가 관할 구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 700개 이상의 의무보험이 존재함
  - (재)보험회사의 조직, 감독 및 LOSSEAR의 추가조항<sup>2</sup>는 Consorcio로 하여금 전자적 방식으로 의무보험과 의무보험 요건을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명시함
    - Consorcio는 의무보험의 보험 종류, 적용법의 법령, 유효일, 책임 한도 및 대안 옵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DGSFP는 타당성의 관점에서 법률을 승인함
  - 최근 장애를 가진 선수들에 대한 의무 스포츠 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한 법안 초안 마련과 국제해상 교통의 촉진에 관한 협약(FAL)에 적용되지 않는 선박에도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됨

〈표 5〉 스페인 주요 의무보험

종류	관련 법률, 제도 및 내용
주택화재보험	• Royal Decree 716/2009 제10조 : 주택 임차인은 도난을 제외한 화재, 자연재해, 기타 손해 등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건설사업자의 재물손해보험, 채권 보험 및 보증보험	• Law 38/1999 제19조 :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결함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주택 건설사업자는 개인 주택 건설에 대한 물적 손해보험(최대 10년) 혹은 채권 보험이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함
사냥꾼 제3자 책임보험	• Royal Decree 63/1994 : 사냥꾼은 사냥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제3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상해에 대해 1인당 최대 약 9만 유로를 보장함
레저·스포츠 선박 제3자 책임보험	• Royal Decree 607/1999 : 레저·스포츠 선박 소유주가 부상자 1인당 최대 약 12만 유로, 사고당 최대 약 24만 유로, 제3자 피해에 대해 최대 9만 6천 유로를 보장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스포츠 시합 참가자에 대한 탑승자 상해보험(PI)	• Royal Decree 1428/2003 제14조 부록2 : 스페인 스포츠 연맹은 도로 위 스포츠 시합 참가자에 대해 사망 및 영구 장애에 대한 보험에 가입해야 함. 장애 보험금은 약 2,200유로에서 1만 2천 유로 사이에 달함
무선 전기 통신 장비 사업자 제3자 책임보험	• Royal Decree 188/2016 제24조 : 무선 전기 및 통신 장비의 사용, 마케팅,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3자 책임으로 30만 유로의 보험금이 그 한도로 규정되어 있음
차량 테스트 시설 제3자 책임보험	• Royal Decree 224/2008 : 차량 테스트 시설 업체는 소유 시설에서 발생한 제3자의 신체적 상해 혹은 물질적 손해에 대해 최소 약 30만 유로를 보장하는 제3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최소 보장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어 조정됨

〈표 5〉 계속

종류	관련 법률, 제도 및 내용
맹견 제3자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oyal Decree 287/2002 : 맹견 소유주는 최소 12만 유로를 보장하는 제3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동 법은 8가지의 견종을 지정하였지만 자치 지역마다 맹견에 해당하는 견종은 상이할 수 있음</li> </ul>
보안 업체 제3자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oyal Decree 8/2007 : 보안 업체가 경비원, 폭발물 관리인, 보안 책임자 및 관리자, 경호원, 야생 보호관, 해양 보호관 및 사설 수사관의 활동에 대한 제3자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함</li> </ul>
철도 사업체 제3자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w 38/2015 (EU 지침 2012/34/EC) : 철도 사업체는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제3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며 회원국 자체적으로 보험금액 한도를 규정할 수 있음. EU의 규정을 스페인 국내 법률화하였음</li> </ul>
원자력손해배상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w 12/2011 : 파리협약 및 브뤼셀보충배상협약에 따라 원자력 시설 운영자는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최대 약 12억 유로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li> </ul>
전자 서명 서비스 제3자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w 6/2020 제20.2조 : 전자 서명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최소 150만 유로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이나 채권 혹은 보증서를 보유해야 함</li> </ul>

자료: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표 6〉 기타 의무보험

종류	관련 내용
근로자 산업재해보험	고용주는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에 따라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최대 15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보험 및 재보험 중개업자, 언더라이팅 업체, 감사인, 투자 서비스 회사, 부동산 신용 중개업자(보험 혹은 은행 보증), 신용평가 및 중개업자, 파산 관리자, (은행 혹은 보증) 중개기관 및 개인 중개업자, 선박 검사관, 액체 석유 제품 설치 혹은 수리업체, 가스 및 고압 전기 설비업체, 고압 전력선 설치업체, 압력 및 소방 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 리프트 유지·보수업체, 이동식 및 자주식 타워크레인 제조, 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 개인 의료서비스 (재정 보증 혹은 보험) 제공업체 등은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
제3자 책임보험	자동차, 스페인 항구에 입항하거나 스페인 해역을 항해하는 300톤 이상의 스페인 국적의 민간 선박 및 동종 외국 선박, 유류오염, 에어쇼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일반 책임보험	철도 운영기관, 승객, 수하물 및 화물을 관리하는 항공사, 상업용 드론 관련 업체, 환경에 위험을 끼치는 기업, 유류오염을 일으키는 선박의 선주, 임상 시험 이행 기관 등은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
대중교통 여행자를 위한 개인 상해보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기관은 이를 이용하는 여행자가 대중교통 이용 시 입을 수 있는 상해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동 보험은 스페인에서 출발하지만 목적지가 타 국가 인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며, 보험료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티켓 가격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 III

## 보험시장 현황

### 1. 전체 보험시장 구조

- 2022년 스페인 보험시장은 세계 보험시장의 1.0%를 차지하며 전 세계 16위 규모를 기록함
  - Swiss Re에 따르면 2022년 스페인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는 682억 달러로 한국의 약 1/3 수준이며, 유럽 선진시장 가운데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다음으로 규모가 큼
    - 업권별 구분 시 스페인 생명보험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1.0%를 차지하여 18위 규모이고, 손해보험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1.0%를 차지하여 12위 규모임
- 2022년 스페인 보험산업 보험침투도는 4.9%이고 보험밀도는 1,433달러임
  - 2022년 스페인 보험산업 보험침투도는 생명보험시장이 약 2.0%, 손해보험시장이 약 2.8%임
    - 한국 보험산업 보험침투도는 생명보험시장이 약 5.4%, 손해보험시장이 약 5.8%임
  - 2022년 스페인 보험산업 보험밀도는 생명보험시장이 601달러, 손해보험시장이 832달러임
    - 한국 보험산업 보험밀도는 생명보험시장이 1,705달러, 손해보험시장이 1,836달러임

〈표 7〉 유럽 주요국의 보험산업 시장규모,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 비교(2022년)

	구분	전 세계 순위	전 세계 점유율(%)	시장규모(달러)	보험침투도(%)	보험밀도(달러)
1	영국	3위	5.4	363,009	10.5	4,781
2	프랑스	5위	3.9	261,254	8.7	3,578
3	독일	6위	3.6	241,633	5.9	2,881
4	이탈리아	9위	2.4	160,168	8.0	2,716
5	네덜란드	12위	1.2	83,875	8.5	4,731
6	스페인	16위	1.0	68,237	4.9	1,433

주: 시장규모는 전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자료: Swiss Re(2023), "World insurance", sigma 3/2023

○ 스페인 보험시장은 손해보험 중심의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보험시장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히 축소된 이후 최근 회복 중임

- 2022년 스페인 보험시장은 전체 보험료 기준 생명보험이 37.6%, 손해보험이 62.4%를 차지하여 손해 보험 중심의 시장구조를 보임
- 2018~2022년간 손해보험이 전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생명보험은 감소함
  - 손해보험시장의 비중 확대는 시장금리로 인한 영향이 크며 코로나19 기간 중 유지된 저금리 환경이 생명보험에는 대체로 악재로 작용한 반면, 손해보험에는 호재로 작용함<sup>24)</sup>
- 스페인 전체 보험시장 규모는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히 축소된 이후 최근 회복 중이나 2022년 기준 보험료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하향함

〈표 8〉 스페인 보험산업 보험료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보험료	생명보험	29,143(44.2)	27,484(42.8)	23,146(38.5)	23,667(38.2)	24,375(37.6)
	손해보험	36,770(55.8)	36,763(57.2)	37,017(61.5)	38,337(61.8)	40,486(62.4)
	전체	65,913	64,247	60,163	62,004	64,861
보험료 성장률	2.2	-2.5	-6.4	3.1	4.6	
명목 GDP 성장률	3.6	3.5	-10.2	9.2	10.2	

주: 1) 괄호 안은 구성비임

2) 보험료는 생명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를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자료: DGSFP(2023), "Seguros y Fondos de Pensiones. Informe 2022", p. 79; DGSFP(2022), "Seguros y Fondos de Pensiones. Informe 2021", p. 76; 세계은행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스페인 보험시장은 보험회사 수가 많고 현지 보험회사와 외국계 보험회사가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음

- 2022년 스페인 DGSFP에 등록된 (재)보험회사는 총 195개이고, 이는 주식회사(125개), 상호보험회사<sup>25)</sup>(28개), 사회보장공제회<sup>26)</sup>(38개), 재보험회사(4개)로 구성됨
  - 스페인에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그 수가 최근 몇 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특정 보험종목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틈새시장에 주목하는 보험회사가 다수 존재함
- 현지 보험회사는 VidaCaixa, MAPFRE, Mutua Madrileña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외국계 보험회사는 Allianz, AXA, Generali의 점유율이 높음

24) 스페인의 저금리 환경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손해보험회사의 원수보험료 확대에 이어짐

25) 스페인에서 상호보험회사(Mutuas)는 조합원들의 위험을 보장하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영리 단체임

26) 스페인에서 사회보장공제회(Mutualidades de previsión social)는 상호부조 원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스페인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짐

○ 스페인 보험시장은 보험회사 간 경쟁으로 인해 시장집중도가 낮고 따라서 경쟁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음

- 2022년 스페인 전체 보험시장은 허핀달지수(Herfindahl index)가 566.1인 경쟁시장<sup>27)</sup>이고, CR5 또한 42.8%에 그침
- 상위 5개 기업이 각 보험권역을 차지하는 비중은 생명보험(57.1%)이 손해보험(47.1%) 대비 다소 높음

〈표 9〉 스페인 주요 보험그룹 및 시장집중도(2022년)

(단위: 백만 유로, %)

순위	보험그룹	수입보험료	비중
1	VidaCaixa	7,729	11.9
2	MAPFRE	7,293	11.3
3	Mutua Madrileña	6,477	10.0
4	Catalana Occidente	3,183	4.9
5	Allianz	3,011	4.6
6	AXA	3,002	4.6
7	Generali	2,455	3.8
8	Zurich	2,424	3.7
9	Santalucía	2,348	3.6
10	Santander Seguros	2,217	3.4

허핀달지수	CR5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566.1	42.8%	57.1%	47.1%

주: 허핀달지수란 산업에서의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값이 클수록 특정 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MAPFRE(2023), "The spanish insurance market in 2022", p. 141, p. 148

○ 2021년 스페인 보험회사는 주로 채권 투자(74.8%)를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

- 2021년 자산운용 구성비는 채권(74.8%)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주식(10.5%), 유닛링크(9.1%), 부동산(2.6%), 파생상품(0.9%) 순임
- 특히 생명보험회사는 확정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호하고 이러한 투자금이 생명보험 회사 전체 운용자산의 약 71%를 차지함<sup>28)</sup>

27) 일반적으로 허핀달지수가 1,000 미만인 경우 경쟁시장이라 해석됨

28) AXCO(2023), "Life and benefits market reports", p. 72

〈표 10〉 스페인 보험회사 자산운용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권	금액	190,506.9	197,574.9	214,962.8	217,341.0	201,554.0
	구성비	79.6	80.3	79.7	78.8	74.8
주식	금액	17,970.1	18,020.5	22,251.2	23,525.0	28,345.2
	구성비	7.5	7.3	8.2	8.5	10.5
유닛링크	금액	14,520.0	14,363.9	17,790.2	19,816.3	24,660.1
	구성비	6.1	5.8	6.6	7.2	9.1
부동산	금액	6,941.8	7,079.1	7,154.9	7,150.8	6,953.0
	구성비	2.9	2.9	2.7	2.6	2.6
파생상품	금액	2,700.4	2,655.7	2,788.4	2,777.0	2,465.8
	구성비	1.1	1.1	1.0	1.0	0.9
만기보유 금융자산	금액	3,270.6	3,170.7	2,022.3	1,905.7	1,863.4
	구성비	1.4	1.3	0.7	0.7	0.7
기타	금액	3,443.8	3,076.0	2,792.6	3,265.6	3,794.2
	구성비	1.4	1.3	1.0	1.2	1.4
합계		239,353.5	245,940.8	269,762.4	275,781.3	269,635.7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market reports", p. 67

○ 스페인 재보험시장의 특징으로는 자연재해와 같은 대재해 위험을 보장하는 공적기관인 Consorcio가 존재한다는 점임

- Consorcio는 자연재해(홍수, 지진, 해일, 화산폭발, 태풍 등)뿐만 아니라 테러와 같이 빈도수는 낮지만 손실규모가 커서 민간 보험회사가 인수를 꺼리는 손실을 보상하는 공적기관임
  - Consorcio는 이 밖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차량이 의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도난차량이거나,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 사고 피해자를 보상함
- Consorcio는 민간보험회사가 스페인 법에 따라 의무 납입하는 부담금으로 운영되며, 따라서 스페인에서 판매되는 모든 보험상품은 Consorcio로 이전되는 보험료를 포함하고 있음
- Consorcio의 보험료는 스페인 보험시장 통계에서는 제외됨

○ 스페인에서 인슈어테크는 초기 발전단계인 것으로 확인됨

- 2020년 발표된 Law 7/2020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핀테크 생태계 발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개념을 도입함
  - 스페인 정부는 2021년부터 매년 두 차례에 걸쳐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받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는 인슈어테크 기업 수는 2021년 첫 회에 4

개로 최고점을 이룬 뒤 0~1개로 축소됨

- 2023년 기준 스페인 핀테크 협회인 AEFI(Asociación Española de Fintech e Insurtech)에 등록된 회원사는 총 186개로 집계됨

## 2. 생명보험시장 현황

- 스페인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2022년 244억 유로를 기록하였고, 2018~2022년 생명보험시장 성장률은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낮았음
  - 스페인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히 축소된 후 최근 회복세로 2022년 244억 유로를 보였으나 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하는 수치임
  - 2018~2022년 스페인 생명보험시장 성장률은 명목 GDP 성장률을 하회하였고, 특히 코로나19는 스페인을 포함하는 선진보험시장에 대체로 악재로 작용함
    - 팬데믹 시기의 저금리 환경은 저축성 상품과 변액보험상품에 영향을 미치며 생명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를 감소시킴
  - 2018~2021년 스페인 생명보험시장 영업이익은 대체로 음의 수치를 보였지만 투자수익으로 인해 세전이익은 모두 양의 수치로 전환됨

〈표 11〉 스페인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이익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입보험료	금액	29,143	27,484	23,146	23,667	24,375
	성장률	-1.7	-5.7	-15.8	2.3	3.0
명목 GDP 성장률		3.6	3.5	-10.2	9.2	10.2
영업이익	금액	3,050.9	-7,077.5	-5,098.0	-7,095.7	-
세전이익	금액	2,263.8	2,356.1	2,071.6	2,502.7	-

자료: DGSFP(2023), "Seguros y Fondos de Pensiones. Informe 2022", p. 79; DGSFP(2022), "Seguros y Fondos de Pensiones. Informe 2022", p. 76; AXCO(2023), "Life and benefits market reports", p. 67, p. 68; Eurostat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스페인 생명보험상품은 보장성 상품보다는 저축·은퇴성 상품이, 단체형보다는 개인형 상품의 비중이 높음

- 스페인 생명보험상품은 크게 저축·은퇴성 상품과 보장성 상품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2022년 기준 저축·은퇴성 상품이 78.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저축·은퇴성 상품에는 연금, 양로보험의 일종인 이연금융상품(Deferred capital), 변액보험상품이 포함되며, 이들 상품은 생명보험시장에서 각각 22.7%, 22.6%, 21.2%를 차지함
  - 저축·은퇴성 상품은 최근 고금리의 영향으로 2023년 이후에도 비중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보장성 상품은 스페인 모기지시장의 부진과 이로 인한 신용생명보험 가입의 축소로 감소가 예상됨
  - 스페인 생명보험회사는 최근 고금리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확대되자 확정형 고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있음
- 스페인 생명보험상품은 또한 개인형과 단체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2022년 기준 개인형 상품이 8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최근 스페인 보험회사는 시니어를 위한 실버시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상품가입 상한연령이 65~70세였으나 최근에는 80~85세로 확대하는 추세임

〈표 12〉 스페인 생명보험상품별 보험료 및 점유율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21		2022	
	보험료	시장점유율	보험료	시장점유율
저축·은퇴성	18,532	78.7	19,350	78.9
연금	5,556	23.6	5,567	22.7
이연금융상품(Deferred capital)	4,556	19.3	5,546	22.6
변액보험	5,084	21.6	5,202	21.2
기타	3,336	14.2	3,035	12.4
보장성	5,006	21.3	5,175	21.1
부양성	13	0.1	10	0.0
전체	23,552	100.0	24,535	100.0
-				
개인형	18,448	78.3	21,268	86.7
단체형	5,104	21.7	3,268	13.3
전체	23,552	100.0	24,535	100.0

주: 기타는 개인형 장기 저축성 보험상품의 일종인 PIAS(Individual systematic savings plans), SIALP(Individual long-term savings insurance) 상품 등을 포함함

자료: MAPFRE(2023), "The spanish insurance market in 2022", p. 79; MAPFRE(2022), "The spanish insurance market in 2021", p. 81

〈그림 1〉 스페인 생명보험상품별 보험료 비중(2022년)

(단위: %)



자료: MAPFRE(2023), "The spanish insurance market in 2022", p. 79; MAPFRE(2022), "The spanish insurance market in 2021", p. 81

- 스페인에는 생명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90여 개가 있으며,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현지보험회사인 VidaCaixa가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31.4%)을 보임
  - 2021년 스페인에서 생명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총 94개이고, 이 중 66개 사는 생명보험업만을 운영하고 나머지 28개 사는 생명·손해보험업을 모두 운영가능한 겸업회사임<sup>29)</sup>
  - VidaCaixa는 스페인 현지 보험회사로 스페인 대형은행인 CaixaBank의 보험부문 자회사이며 2022년 기준 시장점유율 31.4%를 보였고, 10여 년간 시장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
    - 그 뒤로 Santander Seguros(8.9%), MAPFRE(7.1%), Zurich(5.2%), Ibercaja(4.5%)가 높은 점유율을 보임
  - 스페인 생명보험시장은 대체로 스페인 현지보험회사가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수의 외국계보험회사(Zurich, Axa, Generali 등)가 분포된 구조임

<sup>29)</sup> 스페인에서는 1984년 이후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모두 운영하는 겸업보험회사에 대한 면허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중 하나를 택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보험회사(Allianz, Catalana Occidente, Generali, Mutua Madrileña 등)는 겸업형태로 사업을 운영함

〈표 13〉 스페인 생명보험시장 주요회사별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유로, %)

순위	회사명	2021		2022		성장률 (B-A)/A
		수입보험료(A)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B)	시장점유율	
1	VidaCaixa	8,506	36.1	7,705	31.4	-9.4
2	Santander Seguros	654	2.8	2,179	8.9	233.2
3	MAPFRE	1,994	8.5	1,745	7.1	-12.5
4	Zurich	1,445	6.1	1,267	5.2	-12.3
5	Ibercaja	902	3.8	1,115	4.5	23.6
6	Santalucía	719	3.1	1,038	4.2	44.4
7	Catalana Occidente	825	3.5	754	3.1	-8.6
8	Mutualidad Abogacía	619	2.6	754	3.1	21.8
9	Axa	754	3.2	752	3.1	-0.3
10	Generali	693	2.9	718	2.9	3.6

주: 2021년 Mutualidad Abogacía의 수입보험료는 MAPFRE(2022), "The spanish insurance market in 2021", p. 105 자료를 참고함

자료: MAPFRE(2023), "The spanish insurance market in 2022", p. 147

○ 2021년 스페인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비중은 방카슈랑스가 가장 높은 비중(50.2%)을 차지하고 그 뒤로 보험회사 지점, 보험설계사 순임

- 스페인 생명보험시장에서 은행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방카슈랑스 채널의 비중은 2022년 기준 50.2%를 차지함
  - 스페인 주요은행인 CaixaBank, Santander, BBVA는 자체적인 보험사업부를 운영하고 있고, MAPFRE는 CaixaBank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음
  - 단, 방카슈랑스 채널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 67.4% 수준에서 2021년 50.2%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
- 보험회사 지점을 통한 판매 비중은 2021년 21.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2017년 9.0% 수준에서 성장함
- 보험설계사는 2021년 스페인 생명보험시장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중(17.3%)을 보였고, 특히 전속(Exclusive) 보험설계사가 연계(Tied) 보험설계사 대비 보험설계사 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이 밖에도 2021년 보험중개인을 통한 생명보험상품 판매는 9.0%의 비중을 보였고, 인터넷을 통한 생명보험상품 판매는 극히 미미하였음(0.2%)

〈표 14〉 스페인 생명보험시장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방카슈랑스	67.4	64.1	59.3	53.6	50.2
전속 방카슈랑스	39.6	34.9	32.4	32.0	31.2
연계 방카슈랑스	27.8	29.2	26.9	21.6	19.0
보험회사 지점	9.0	10.0	14.6	13.7	21.8
보험설계사	15.5	16.3	16.7	16.4	17.3
전속 보험설계사	14.9	15.8	15.9	15.6	15.6
연계 보험설계사	0.6	0.5	0.8	0.8	1.7
보험중개인	6.9	8.4	7.9	8.2	9.0
인터넷	0.2	0.2	0.4	1.0	0.2
기타	1.0	1.0	1.2	7.1	1.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보험회사 지점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보험회사 사무실(Oficinas de la entidad)에서 직접 인수한 보험계약분을 의미함  
 자료: DGSFP(2023), "Seguros y Fondos de Pensiones. Informe 2022", p. 210; MAPFRE(2023), "The spanish insurance market in 2022", p. 42

### 3. 손해보험시장 현황

- 스페인 손해보험시장 원수보험료는 2022년 405억 유로를 기록했고, 시장은 코로나19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확대되는 추세임
  - 2018~2022년 스페인 손해보험시장은 생명보험시장과 달리 코로나19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성장세를 보였고, 2022년 원수보험료는 405억 유로를 보임
    - 스페인을 포함하는 보험선진시장에서 팬데믹은 손해보험시장에 대체로 호재로 작용하였고, 스페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포함하는 손해율의 증가로 원수보험료가 상승함
  - 2018~2020년 스페인 손해보험시장 영업이익과 세전이익은 모두 양의 수치를 보여 생명보험시장과 비교되는 안정적인 수익성을 나타냄
  - 2022년 스페인 손해보험시장의 높은 성장률(5.6%)은 건강보험시장 확대에 기인함

〈표 15〉 스페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이익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원수보험료	금액	36,770	36,763	37,017	38,337	40,486
	성장률	5.4	0.0	0.7	3.6	5.6
명목 GDP 성장률		3.6	3.5	-10.2	9.2	10.2
영업이익	금액	2,069.55	2,318.49	3,078.78	-	-
세전이익	금액	3,009.40	3,317.99	3,927.39	-	-

자료: DGSFP(2023), "Seguros y Fondos de Pensiones. Informe 2022", p. 79; DGSFP(2022), "Seguros y Fondos de Pensiones. Informe 2022", p. 76; AXCO(2023), "Non 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p. 67; Eurostat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스페인 손해보험상품은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멀티리스크보험이 대체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가운데 장례보험의 인기가 높은 특징이 있음

- 2022년 원수보험료 기준 스페인 손해보험시장은 자동차보험(28.2%), 건강보험(26.2%), 멀티리스크보험(21.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22년 스페인 자동차보험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자동차 판매 대수가 줄었음에도 보험료 상승과 보험 가입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로 상승함
  - 2022년 스페인 건강보험은 전년 대비 7.0%의 성장률을 보였고,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1,380만 명에 이름
  - 멀티리스크보험은 주택보험(Homeowners), 비즈니스보험(Businesses), 커뮤니티보험(Communities), 산업체보험(Industriales) 등을 포함하고, 2022년 원수보험료 기준 전년 대비 5.7% 성장함
- 스페인 손해보험시장의 특징으로는 타 국가 대비 장례보험이 비교적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인다는 점으로 2022년 기준 6.5%의 비중을 나타냄
  - 스페인에서 장례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오랜 전통으로 인해 장례보험 가입률이 높은 특징이 있으며, 2022년 스페인 전체 인구의 약 46.7%가 장례보험에 가입되어 있음<sup>1)</sup>
  - 스페인에서 장례보험은 장례식 비용에 관한 일시금 지급에 그치지보다는 상조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생명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으로 분류됨
  - 이 같은 높은 보급률로 다수의 스페인 장례보험회사는 코로나19 시기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 시에도 팬데믹 면책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보상을 실시한 바 있음
- 이 밖에도 스페인 손해보험시장은 돌봄보험, 금전손실보험 등 시장이 세분화·전문화된 특징이 있음

1) UNESPA(2023. 7), "Los seguros de decesos en España. Datos 2022"

〈표 16〉 스페인 손해보험상품별 보험료 및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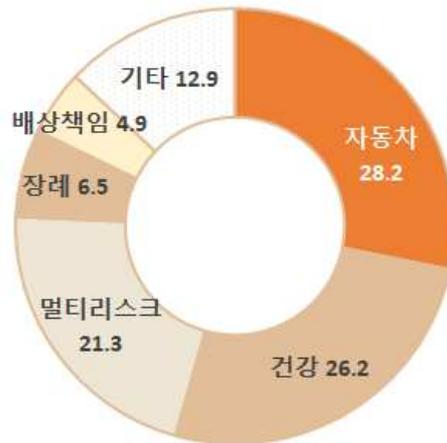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21		2022		성장률
	보험료	시장점유율	보험료	시장점유율	
자동차보험	10,990	28.7	11,353	28.2	3.3
건강보험	9,854	25.8	10,543	26.2	7.0
멀티리스크보험	8,116	21.2	8,578	21.3	5.7
장례보험	2,569	6.7	2,626	6.5	2.2
배상책임보험	1,800	4.7	1,955	4.9	8.6
기타대물손실보험	1,400	3.7	1,450	3.6	3.6
상해보험	1,120	2.9	1,134	2.8	1.3
신용보험	650	1.7	714	1.8	9.8
운송보험	539	1.4	570	1.4	5.8
돌봄보험	362	0.9	441	1.1	21.9
금전손실보험	361	0.9	387	1.0	7.1
화재보험	229	0.6	198	0.5	-13.2
보증보험	149	0.4	168	0.4	12.6
법률보험	115	0.3	122	0.3	6.5
도난보험	31	0.1	24	0.1	12.6
전체	38,251	-	40,239	-	5.2

주: 보험료는 Accrued direct insurance premiums를 기준으로 함  
 자료: MAPFRE(2023), "The spanish insurance market in 2022", p. 47

〈그림 2〉 스페인 손해보험상품별 보험료 비중(2022년)

(단위: %)



주: 멀티리스크보험은 주택보험, 비즈니스보험, 커뮤니티보험, 산업체보험 및 기타 멀티리스크보험을 포함함  
 자료: MAPFRE(2023), "The spanish insurance market in 2022", p. 47

○ 스페인에는 손해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130여 개가 있으며, 2022년 원수보험료 기준 현지보험회사가 선두권을 차지하는 가운데 다수의 외국계보험회사가 시장을 분배함

- 2022년 스페인에서 손해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총 132개이고, 이 중 102개 사는 손해보험업만을 운영하고 나머지 30개 사는 생명·손해보험업을 모두 운영가능한 겸업회사임
- 2022년 스페인 손해보험시장은 현지보험회사인 Mutua Madrileña와 MAPFRE가 각각 15.2%와 13.8%의 비중을 차지하며 선두권임
  - 그 뒤로 Allianz(6.6%), Catalana Occidente(6.0%), AXA(5.6%), Generali(4.3%)가 높은 점유율을 보임

〈표 17〉 스페인 손해보험시장 주요회사별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유로, %)

순위	회사명	2021		2022		성장률 (B-A)/A
		원수보험료(A)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B)	시장점유율	
1	Mutua Madrileña	5,573	14.6	6,098	15.2	9.4
2	MAPFRE	5,342	14.0	5,548	13.8	3.9
3	Allianz	2,563	6.7	2,643	6.6	3.1
4	Catalana Occidente	2,312	6.0	2,429	6.0	5.1
5	AXA	2,306	6.0	2,250	5.6	-2.4
6	Generali	1,649	4.3	1,737	4.3	5.3
7	Sanitas	1,530	4.0	1,636	4.1	6.9
8	Helveta	1,491	3.9	1,596	4.0	7.0
9	ASISA	1,315	3.4	1,405	3.5	6.8
10	Santalucia	1,247	3.3	1,310	3.3	5.1

자료: MAPFRE(2023), "The spanish insurance market in 2022", p. 144

○ 2021년 스페인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비중은 보험설계사가 가장 높은 비중(35.6%)을 차지하고 그 뒤로 보험중개인, 보험회사 지점, 방카슈랑스 순임

- 스페인 손해보험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채널은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인으로, 2021년 두 채널의 합산 비중은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약 60%를 차지함
- 스페인은 보험회사 지점을 통한 손해보험상품 판매 비중도 높은 편으로 2021년 18.9%를 보임
- 방카슈랑스 채널은 스페인 손해보험시장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함
  - 방카슈랑스 채널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 12.6%에서 2021년 14.8%로 증가함

- 이머징 판매채널로 분류되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미미한 비중(1.4%)이나 자동차보험과 주택보험 부문에서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늘고 있음

〈표 18〉 스페인 손해보험시장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보험설계사	35.4	36.2	36.1	36.8	35.6
전속 보험설계사	33.2	33.7	33.1	34.3	32.7
연계 보험설계사	2.2	2.5	3.0	2.5	2.9
보험중개인	25.2	24.4	24.6	25.6	24.2
보험회사 지점	20.6	19.7	19.5	17.0	18.9
방카슈랑스	12.6	13.0	13.2	13.8	14.8
전속 방카슈랑스	5.8	5.9	6.0	6.2	6.7
연계 방카슈랑스	6.8	7.1	7.2	7.6	8.1
인터넷	1.5	1.9	1.5	1.9	1.4
기타	4.9	4.7	5.3	5.0	5.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보험회사 지점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보험회사 사무실(Oficinas de la entidad)에서 직접 인수한 보험계약분을 의미함  
 자료: DGSFP(2023), "Seguros y Fondos de Pensiones Informe 2022", p. 210; MAPFRE(2023), The spanish insurance market in 2022", p. 42

# IV

## 시사점

- 세계 2위 관광대국이자 유럽 내 경제 규모 4위를 차지하는 스페인은 2010년 남유럽 국가 재정적자 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경제위기를 맞이했으나 동 위기를 극복하고 있음
  - 스페인은 EU 경제권 편입 및 유로존 가입 이후 부동산 버블 붕괴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로 인한 경제위기를 겪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있으며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하는 근본적인 경제모델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스페인은 EU 가입 이후 유럽연합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기반으로 보험산업 관련 법 및 규제를 발전시켜 왔음
  - 스페인 보험산업은 유럽 전역을 감독하는 ESRB와 EIOPA의 감독하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LOSSEAR에 따라 DGSFP가 보험회사의 감독 및 규제를 맡고 있음
- 보험회사의 진입과 관련하여 EU 회원국 보험회사와 제3국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 규제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외국 법인의 스페인 보험회사 지분 소유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음
  - 보험법을 준수한 외국 법인의 경우 스페인 보험회사 소유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경제지역 (EEA)의 보험회사는 본사 통제하에 스페인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지점을 설립할 수 있음
  - 다만 EEA가 아닌 제3국 보험회사는 스페인 거주자를 법인 대표로 임명해야 하고 재보험회사 설립의 경우 Solvency II와의 제도 호환성을 검증하기 위해 별도의 동등성 테스트를 받아야 함
- 스페인 보험산업은 경쟁시장이고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시장이 정체 양상이지만,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다수의 보험회사 간 경쟁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스페인에서는 총 190여 개에 달하는 보험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간 경쟁이 치열하나 시장규모는 대체로 정체 양상임
  -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시장규모가 급격히 축소된 이후 최근 회복세이나 2022년 기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향하고 있음
  - 반면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코로나19 기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성장세를 보였고, 장래보험이 높은 인기를 끄는 특징이 있음

## 저자약력

**이승주**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학 석사 / 연구원  
E-mail : sj\_lee@kiri.or.kr

**장윤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박사 / 연구원  
E-mail : yunmi.jang@kiri.or.kr